

나무판에 새긴 누정 현판 선조들의 풍류

호남의 기록문화유산 ③ 목판

가끔 오래된 사찰이나 누정에 가면 나무판에 새겨 걸어진 한시문을 볼 수 있다. 나무판에 기록된 문화유산을 흔히 목판(木板)이라고 부른다. 목판은 다시 책을 인쇄하는데 필요했던 책판(冊板)과 누정이나 서원 사찰 등에 걸린 현판(懸板)으로 나눌 수 있다. 호남지방에도 상당수의 책판이나 현판 등이 있는데, 아직 그 전체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는 것은 각종 현판이다. 누정에 가면 시문을 새겨 걸어진 것, 그리고 사찰의 편액이나 주련 등 많은 현판들을 만나게 된다.

그뿐 아니다. 담양의 성산 계곡에서는 몇 장의 목판이 새겨지기도 하였는데, 목판 '소쇄원도'나 '성산계류

를 배경으로 하여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누정은 주거공간 안에서 세울 수 있지만, 호남의 경우는 생활공간에서 조금 떨어져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세웠다는 점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누정은 건물의 주인이 있음에도 주인행세를 하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며, 이곳에서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호남 정자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면앙정(湄陽亭)이 있다. 이 정자는 16세기 때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순(宋純, 1493~1582)이 세운 것으로, 정자 이름은 '맹자(孟子)'구절을 따라 지은 것이다.

현재 면앙정에 걸려 있는 현판은

호남지역 누정 450개 ... 현판도 다양

김인후·송순·이황 등 명사 작품 걸려

탁월도' 등은 매우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590년, 때는 한여름 복날. 별피라 부르는 성산(星山) 주변 계곡에서 옛 선비들이 더위를 씻는 모습을 담은 성산계류열도(星山溪柳濯熱圖)를 보자.

이 그림은 김성원이 교유하던 여러 유생들과 함께 식영정(淸影亭)과 서하당(棲霞堂), 환벽당(環碧堂) 등 세 정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시문을 지으며 즐기던 모습을 그려 새긴 것이다. 그림 뒷장에는 같이 모였던 유생들의 이름, 자호(字號), 본관(本貫)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때 같이 모인 사람들은 김복역(金福億) 등 모두 11명이다.

그림을 잘 살펴보면 갖은 유생들이 저마다 정자에서 또는 다리에서 술상을 받아들고 서로 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자 주변에 길게 늘어선 노송(老松)은 한 여름날의 한가로움이 더욱 돋보이게 한다. 술이 몇 순배 돌고나면 흥에 겨워 시회(詩會)도 무르익었을 것이다. 이 때 지은 시 두 수가 남아 있다.

호남 누정의 특징은 풍부한 물산

송순과 같은 시대 인물인 청송(淸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이 썼다고 기록에 전하나 면앙정이 임진왜란 때 타버렸다고 했으니 지금 남아 있는 현판의 글씨가 성수침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현재 면앙정에는 모두 13점의 현판이 걸려 있으며, 면앙정 일대의 풍광을 30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노래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고경명(高敬命, 1533~1592) 등의 '면앙정삼십영', 송순 자신이 쓴 원운시 3수, 담양현감 조세관(趙世觀)이 자신의 선조와 송순의 인연을 노래한 시, 퇴계 이황(退溪 李滉) 등 당대의 명사들이 쓴 작품들이 다수 관각되어 있다.

누정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특히 호남은 풍부한 물산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누정을 자랑한다. 1980년대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호남지역의 현존하는 누정이 약 450여 곳이었다. 기록에만 전하는 누정도 약 700여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누정 현판(懸板)에는 시판(詩板) 그리고 주련(柱聯) 등 다양한 목판이 존재하고 있다.



선조들이 남긴 목판은 현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진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달 소쇄원에서 진행한 목판 '성산계류탁월도' 재현 행사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산계류탁월도

누정의 현판기록은 건립시기와 인물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누정에서 이루어진 예술적인 창작은 시(詩)나 부(賦) 등의 다양한 문학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협력하여 2010년도부터 호남지역 누정현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단위 누정 조사 작업을 기초로 누정의 유무 및 지명변경 그리고 제주지역 누정 목록을 다시 조사한 일이 있다. 이는 80년대에 이루어졌던 전남대의 호남누정조사에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더하여 작성되었다. 추가한 결과 현존 누정은 약 800여개

소로 파악하여 목록이 작성되었다. 현재 이 누정 총목록은 현존유무, 지역별 등과 같이 다양한 목록으로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전남 동부권 곡성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누정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광주 인근의 서원, 사찰 등을 포함한 약 400여 점의 현판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DB로 구축하는 작업은 호남학 연구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목관자료 기록문화유산은 현판 분야만 하더라도 누정을 포함하여, 사찰이나 서원 등의 현판을 합하면, 비교적 가치있는 호남의 현판 숫자는 대략 1만 여장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면앙정 현판

이 가운데 주요한 현판들에 대하여 이미지화를 비롯한 설명들을 붙여서 약 10여년에 걸쳐서 이들 현판을 모두 DB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늘 마주하는 현판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호남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한가지인 목관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www.honamculture.or.kr
/글=임준성 teapom@hanmail.net.
조선대 한문학과 교수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특별연구원

이 기사는 (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호남 역사인물 사전 만든다

④ 호남인물검색 시스템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세계 어느 지역이나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호남 지역은 특히 무수한 사건들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역사 속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그 인물들은 우리들의 선조이자 오늘의 호남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간 인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 인물 사전 등을 검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찾을 수 있는 인물의 숫자는 너무나 적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민족문화백과사전'과 같은 사전류나, '한국인물정보검색' 등의 인터넷을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매우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은 연구 분야의 한 가지로 현재 호남 인물의 집성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호남의 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인물 정리에 대한 관련 서적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좀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12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에 '호남인물검색시스템'이라는 분야를 신설하여 호남 역사에 의미 있는 인물들의 종합적인 인물 사전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이를 통하여 각 인물마다 생애나 문헌, 작품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호남역대 인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20세기 인물 포함 1만여명 정리

적은 숫자라는 말이다. 최근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사마방목' 등이 DB화 되어있어 그나마 일부 인물을 좀 더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수만 명이 넘는 호남의 역사 문화 주요 인물 중 사전처럼 찾기가 검색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일의 천 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남의 역사 문화 인물을 알려주는 내용은 여러 수많은 문헌 가운데 흩어져 전하고 있기에, 아직 체계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인물 관련 기록은 호남 지역의 약 3000여 종에 달하는 개인 문집을 비롯하여,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와 같은 지지류 등에 인물 조가 들어가 있어서 각 지역의 인물들이 일부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각 지역의 읍지(邑誌) 들에도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여러 종류의 책들이 모두 다 따로따로 있어서, 이들 호남의 역사 인물을 한자리에서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이제는 호남의 전 영역과 전 역사적 시기에 걸친 호남 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한 자리에 인물사전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초의 시도이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정보 센터에 들어가는 인물의 수는 적어도 1만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인물은 물론, 가능한 20세기 근대 인물들까지 폭넓게 조사하여 정리하여 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호남인물에 대한 기본 자료를 DB화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호남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연구실에서는 이들 인물에 대한 기초 사전적인 조사 정리가 일차적인 목표이고, 향후 이들 인물들의 수많은 관련 기록들을 집성하는 인물정보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이차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

예정대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올해부터 약 7년간에 걸쳐서 기초적인 인물검색을 위한 '호남인물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호남 인물에 대한 검색은 이 검색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쉽게 찾아보게 될 것이다.

/글=조일형 choilhyoung2005@hanmail.net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연구원)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 바랍니다. 향후 전국 지방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 회원, 본과장, 지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자문위원참여)

일 정

- 일 시 : 2012년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전남 동시 실시)
-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 문 의 :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 062) 268-0978, 011-434-4837

비 전	회원 및 지부 모집대상
1. 방과후학교 교사인증 자격증발급 2. 방과후교사 양성과정 3. 일자리 창출(고학력경력단절여성) 4. 사회적 기업 지원 5. 평생교육원운영지원 6. 법인설립지원	1. 교육계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2. 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분 3. 학원운영 경험이나, 현재 학원운영중 이신 원장님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하실분
회원가입 후 진로	사 업 영 역
초, 중, 고 방과후 교사, 창업지원,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각 대학평생교육원, 1:1 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강사, 각대학 평생교육원 방과후강사 등으로 취업	수련활동(직접자수련원, 정남진리조트), 체험학습활동(공예체험, 수영등), 수학여행, 학예발표회, 축제(음향, 조명, 무대풍선장식, 레크리에이션강사, 비디오텔링등)

사단법인 대한방과후교육협회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